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경제 지표 없지만 기업들 밝은 전망 제시
- Reuters: 전문가들, "올해 두 번 금리 인하지만, 내년 금리 인하 경로 불확실해"

[미국 금융]

- WSJ: 금, 은 가격 이제는 하락

[미국 생활]

- WSJ: 미국 MBA 프로그램 관심 줄고 아시아 학교들은 호황

[무역 전쟁]

- Bloomberg: 소기업 원고들, 대법원에서 "트럼프는 3조불 불법 관세" 주장
- Bloomberg: 트럼프 행정부, "중국은 미국 투자 외국 기업 처벌 말라" 경고
- Bloomberg: 트럼프 희토류 관련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 호주와 협상

[자동차]

- CNBC: 미국 자동차 산업, 고비용 및 경제적 혼란에도 회복력 보일까?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UnitedHealth, 의료 청구에 AI 활용 예정
- Bloomberg: GM, 전망 상향 조정...트럭 수요 강화로 관세 부담 완화
- CNNBusiness: 연방항공청, "보잉 737MAX 생산량 월 42대로 증산 허용"

[미국 경제]

Bloomberg: America Inc. Provides Upbeat Picture in Absence of Economic Data

미 경제 지표 없지만 기업들 밝은 전망 제시

-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미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미국의 운송, 소비재, 산업재 기업들의 밝은 전망치 지표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GE와 3M, 코카콜라, 필립 모리스 등의 회사들이 실적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 이들 기업들의 재무 상황은 무역, 관세, 소비자 행태에서 몇 분기 동안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호조를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Reuters: US Fed to trim rates twice more this year; 2026 rate path very unclear

전문가들 “올해 두 번 금리 인하지만, 내년 금리 인하 경로 불확실해”

- 로이터가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 결과 연준이 다음주에 0.25%, 그리고 12월에 0.25% 금리를 내리겠지만 내년 말까지 금리 조치에 대해서는 이견

을 보이고 있다.

- 응답자 117명중 115은 10월 29일에 0.25%, 나머지 두사람은 10월에 0.25%, 12월에 0.5% 인하를 전망했다.
- 전문가 응답자들은 내년 말 기준금리가 어디에 도달할지에 대해 2.25~2.50%에서 3.75~4.00%까지 무려 7가지로 의견이 달랐다. 그 같은 이유중 하나는 내년 5월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난 후 누가 후임자가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Reuters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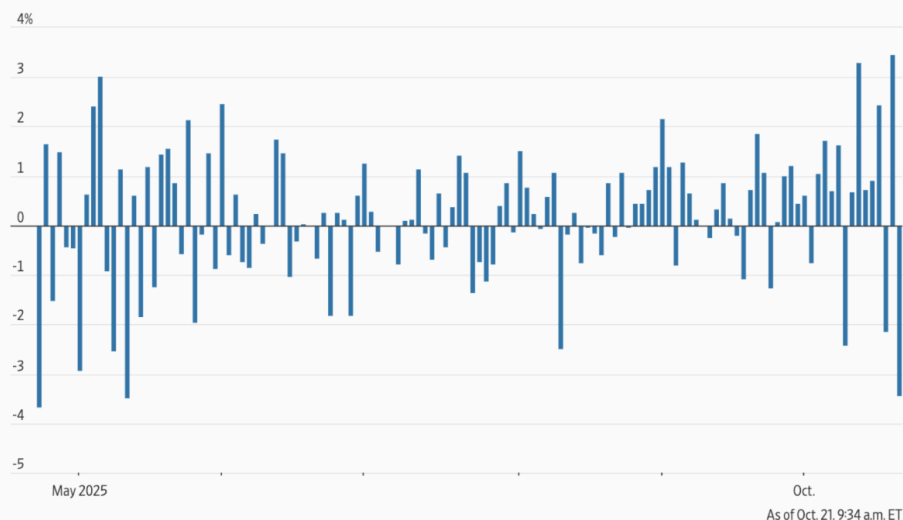
[미국 금융]

WSJ: Gold and Silver Prices Dr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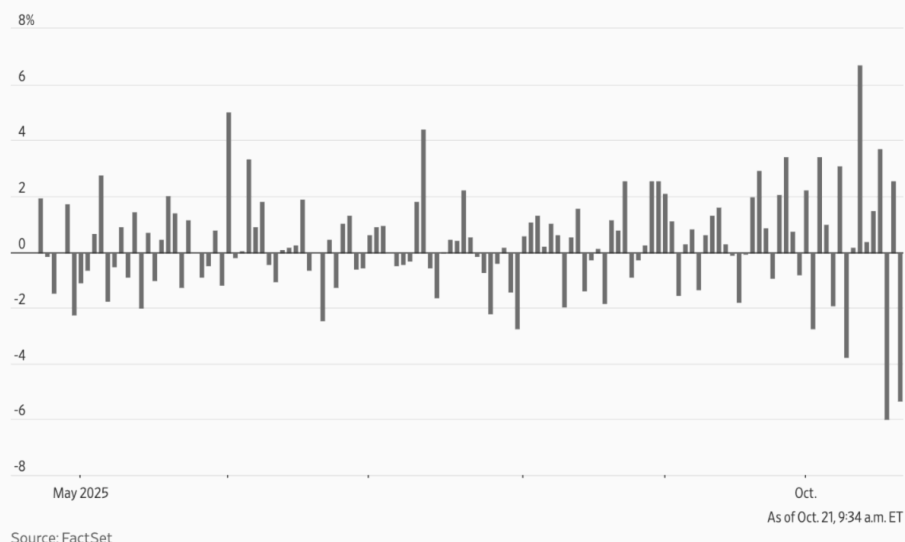
금, 은 가격 이제는 하락

-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 하루 만에 하락했으며, 월요일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가격으로 마감했던 은 선물은 더욱 큰 폭으로 하락했다.
- 금 선물 계약은 트로이 온스당 4,245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서 2.6% 하락했다.
- 은 선물 계약 가격은 4.6% 하락하여 트로이 온스당 약 49달러에 거래되었다.

One-day moves in most-active gold futures



One-day moves in silver, past six months



[미국 생활]

WSJ: Interest in American M.B.A. Programs Shrinks, but Schools Across Asia Are Booming**미국 MBA 프로그램 관심 줄고 아시아 학교들은 호황**

- 올해 미국 내 MBA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1% 감소한 반면, 유럽, 인도, 아시아 지역의 학교에 대한 지원은 증가했다.
- 이는 많은 유학생들이 비자 제한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미국으로 유학 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Wharton에서는 MBA 지원서가 4% 증가했으나, 해외 지원자의 비율은 31%에서 26%로 감소했다. 이와 같이 미국 대학들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겪고 있는 상태이다.
-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소재 학교의 국제 지원은 42% 증가했다.

[무역 전쟁]

Bloomberg: Supreme Court Is Told Trump Tariffs Are Illegal \$3 Trillion Tax**소기업 원고들, 대법원에서 “트럼프는 3조불 불법 관세” 주장**

- 소기업체들은 연방대법원 심리에서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불법적인 대규모 세금 부과라는 하급심의 판결을 지지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 현재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국가 안보, 외교정책, 경제 긴급성을 해소하기 위해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를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 판사들은 이 권한이 관세 적용에 합법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에 대해 10%~5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항소법원은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신의 권한을 이용했다고 판결한바 있다. 현재의 관세 시행 여부는 대법원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Bloomberg: Trump Official Warns China Against Penalizing Companies Investing in US**트럼프 행정부 “중국은 미국 투자 외국 기업 처벌 말라” 경고**

-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국 기업이 미국의 조선업 발전을 지원하는 일이 발생한 후에 중국 정부에 “미국의 핵심 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보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USTR에 따르면 중국의 제재 조치는 미국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글로벌 공급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강제적인 경제 조치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 현재 양국은 항만세 부과와 선박 및 관련 장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핵심 항만들을 통제하려는 노력에 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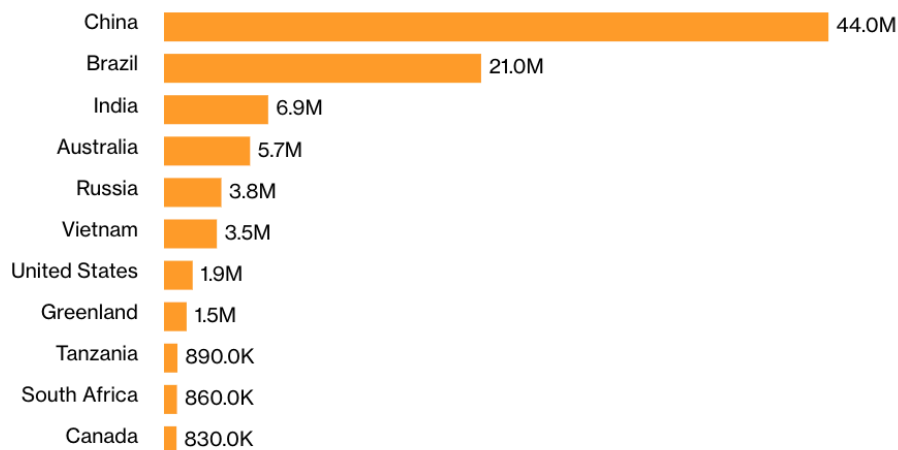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 Makes Rare Earths Deal With Australia to Fight China 트럼프 희토류 관련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 호주와 협상

- 미국과 호주는 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호주의 광산 및 가공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 이법 합의에는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한 호주의 가공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양국은 국내 시장을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우선 양국은 초기 단계에 향후 6개월간 각각 1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Australia Ranks Fourth in Rare Earth Reserves

Metric tons of rare-earth-oxide equivalents



Source: US Geological Survey

Note: Data are January 2025 estimates; reserves unavailable for Burma, Madagascar, Malaysia, Nigeria and other small producers; Thailand's reserves (4,500 tons) not displayed.

Bloomberg 기사

[자동차]

CNBC: Cost and chaos continue to test resiliency of U.S. auto industry 미국 자동차 산업, 고비용 및 경제적 혼란에도 회복력 보일까?

- 미국 자동차 산업은 올해 초 엄청난 불확실성을 겪게 되며 비교적 비관적인 전망을 내어놓았으나,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Barclays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자동차에 관하여 “관세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업계는 예상보다 더 잘 견뎌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전망을 ‘부정적’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다.
- S&P글로벌은 2025년 미국 경차 판매 예상치를 약 2% 상향 조정해 1,610만 대를 기록할 것이라 예측했다.

- 이러한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요인들에는 업계 매출과 생산이 예상보다 훨씬 잘 유지되고, 소비자 지출과 같은 거시 경제적 요인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 이번 주 GM(General Motors), 포드, 테슬라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낙관론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UnitedHealth's 'Optum Real' Uses AI to Speed Up Medical Claims

UnitedHealth, 의료 청구에 AI 활용 예정

- UnitedHealth가 의료 청구 처리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Optum Real'을 새롭게 테스트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주장하는 청구 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목표로 설계되었다.
- 이 시스템은 복잡한 건강 보험 규정에 따라 청구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사와 청구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미니애폴리스 소재의 Allina Health는 12월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5,000건 이상의 진료에서 청구 거부 건수를 줄일 수 있었다.
- Allina Health는 이에 관해 Optum Real이 사전 승인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일부 환자가 더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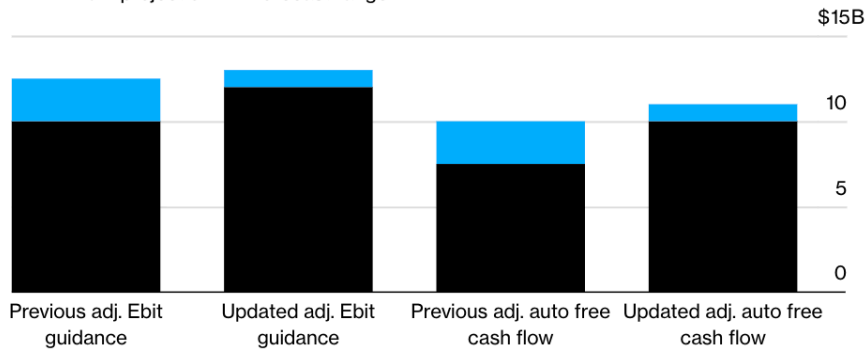
Bloomberg: GM Raises Outlook as Strong Truck Demand Dulls Tariff Pain GM, 전망 상향 조정...트럭 수요 강화로 관세 부담 완화

- GM(General Motors)가 연간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며, 월가 추정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 이러한 전망 조정은 픽업 트럭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해 새로운 완화 조치를 취한 데에 따른 것이다.
- GM은 2025년 이익이 120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목표치인 100억 달러에서 125억 달러 사이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 GM은 트럼프 행정부의 배출가스 규제 완화 조치에 힘입어 가솔린 SUV와 픽업 트럭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어놓았다.
- 한편, GM CFO Paul Jacobson은 GM이 EV를 생산할 때마다 손실을 본다면 이미 전기차 사업 구조조정에 16억 달러의 일회성 비용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GM's More Upbeat Outlook

Carmaker raises earnings, cash flow guidance

■ Minimum projection ■ Forecast range



Source: Company statement

Bloomberg 기사

CNNBusiness: Boeing can hike 737 MAX production to 42 planes per month, FAA says

연방항공청, “보잉, 737MAX 생산량 월 42대로 증산”

- 연방항공청이 2024년 1월부터 시행해 온 월 38대 항공기 생산 상한선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보잉은 737MAX 생산량을 월 42대로 늘릴 수 있게 되었다.
- 이들은 2024년 알래스카 항공의 737MAX9 기종에서 문이 떨어져나가는 사태 이후로 전혀 없는 생산 제한을 부과했었다.
- 이번 조치와 관련해 연방항공청은 “이번 소규모 생산 속도 증가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잉 생산 라인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보잉사는 이에 대해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여 생산량을 늘릴 준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CNNBusiness 기사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